

2017년 6월 26일

~ 열의계 HONMA, 강함의 증명 ~  
**유소연 프로 · 황중곤 프로**  
**미국 · 한국에서 같은 주 W 우승**  
 유소연 프로는 TEAMHONMA 처음으로 ROLEX 랭킹 1 위에

주식회사 혼마골프

주식회사 혼마골프 (본사 : 도쿄도 미나토 6-10-1 롯본기 힐즈 모리타워— 35F、대표이사사장 : 이토야스키) 와 클럽 사용 등을 체결한 유소연 프로가 「미국여자 프로골프(LPGA)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」 (6월 23일~25일, 피너클 골프클럽 아칸소주) 에서 황중곤 프로가 한국남자투어의 메이저대회 「제 60 회 KPGA 선수권 with A-ONE CC」 (6월 22일~25일, A-ONE CC 부산) 에서 각각 우승을 장식했습니다.

2 위에 5 타차의 단독순위로부터 시작했던 최종일도 무난하게 2 타차로 따돌리고 4월 첫 메이저 「ANA 인스피레이션」 우승 한 이후에 또 우승을 손에 넣은 유소연 프로는 결국 ROLEX 랭킹의 톱에 올라, LPGA의 상금 순위 및 기타의 각 통계에서도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



또 단독선두와 2 타차로 뒤진 공동 4 위로 최종라운드를 시작한 파이널 라운드를 스타트한 황중곤 프로는, 이글 1 개와 버디 4 개 (보기 1 개)의 5 언더로 훌륭하게 1 타차의 역전 승리를 하여 한국 투어의 메이저 대회를 제압했습니다. 이 승리에 의해 올해 10월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미국 PGA 투어 공식전, 「THE CJ CUP @ NINE BRIDGES」의 출전권을 얻었습니다.

TW737×TEAM HONMA 가 전 세계 투어에서 높은 성능과 강함을 증명합니다. 이번 시즌도 계속 TEAM HONMA 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

## 유소연 프로 프로필

【생년월일】 1990년 6월 29일

【출신】 한국 서울시

【신장】 169cm

【ROLEX 랭킹】 1위

【미국여자상금랭킹】 1위

(※6월 26일 현재)



### 【당사 사용 클럽】

1W:	TOUR WORLD TW727 460 9.5°	VIZARD YZ55 S
5W:	TOUR WORLD TW717FW 18°	VIZARD TC55 R
UT:	TOUR WORLD TW727UT 22°	VIZARD UT65
UT:	TOUR WORLD TW727UT 25°	VIZARD UT65
Iron:	TOUR WORLD TW737V #6-#10	GS85 R
Wedge:	TOUR WORLD TW-W 50°	NS950 R
Wedge:	TOUR WORLD TW-W 54°	NS950 R

### 코멘트

시즌 첫 2승은 정말 기쁘고, 정말 흥분해 있습니다. 3일간 1개의 보기는 스스로 멘탈과 샷에서도 능숙하게 컨트롤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

올해 들어서, 특히 아이언의 정밀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칠 수 있어서 샷과 퍼팅이 안정이 되어 좋은 스코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이 우승으로, 나머지 메이저 토너먼트에서도 상위에서 플레이 하는 것에 충분히 자신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

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되므로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

## 황중곤 프로 프로필

【생년월일】 1992 년 5 월 16 일

【출신】 한국 서울시

【신장】 178cm

【KPGA 상금랭킹】 6 위

【JGTO 상금랭킹】 21 위

(※6 월 26 일 현재)

【당사 사용 클럽】

1W:	TOUR WORLD TW737 460 9.5°	VIZARD YA65 X
3W:	TOUR WORLD TW737FW 15°	VIZARD EX-A75 X
UT:	TOUR WORLD TW717UT 19°	VIZARD UT95
Iron:	TOUR WORLD TW727V #3-#10	DG TOUR ISSUE S300
Wedge:	TOUR WORLD TW-W 52°	DG TOUR ISSUE S300
Wedge:	TOUR WORLD TW-W 58°	DG TOUR ISSUE S300



### 코멘트

모국의 메이저 타이틀을 잡을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은 작년보다 각각 10야드이상 버거리가 늘어난 TW737 시리즈에 드라이버와 페어웨이 우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

일본 투어에서 4승째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, 영원이었던 한국에서 개최되는 PGA 투어 출전권을 얻었으므로 목표는 물론 우승이고, 가능하면 필 미켈슨 선수와 같이 쳐보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